

어마나

- 驚いて 놀라서 「어마나」
- けがをして 다쳐서 「어마나」
- 好きな人と目が合って 좋아하는 사람과 시선이 맞아 「어마나」
- やらかして 잘못을 저질러 「어마나」
- 怒って 노하며 「어마나」
- あきれて 기가 막혀서 「어마나」
- うれしくて 기뻐서 「어마나」
- 感心して 감동하여 「어마나」

에이

- 怒って 노하며 「에이」
- 悔しくて 억울해서 「에이」
- 意気込んで 분발하여 「에이」
- 攻撃するとき의 공격할 때의 「에이」
- 疲れて 피곤해서 「에이」
- うとうとして 번거로워서 「에이」
- 英語の 영어의 「에이」
- あきれて 기가 막혀서 「에이」

야

- 注意しようと 주의할 때 「야」
- 呼びかけて 호소할 때 「야」
- 気合を入れて 분발하여 「야」
- さげすんで 알보며 「야」
- 弓矢の 화살의 「야」
- 否定するとき의 부정할 때 「야」
- 高圧的な 고압적인 「야」
- 挨拶するとき의 인사할 때 「야」

웃음소리

- 悪魔의 악마의 「웃음소리」
- 特徴的な 특징적인 「웃음소리」
- ピエロ의 어리광대의 「웃음소리」
- 赤ちゃん의 아기의 「웃음소리」
- 王の 왕의 「웃음소리」
- お年寄りの 늙은이의 「웃음소리」
- 貴族의 귀족의 「웃음소리」
- 人を馬鹿にした 남을 깔보는 「웃음소리」

에

- 先生に呼ばれて 선생님에게 불리워 「에」
- とても驚いて 몹시 놀라서 「에」
- 親に呼ばれて 부모에게 불리워 「에」
- 反省して 반성하여 「에」
- 答えがわかって 답을 알아서 「에」
- 適当に 적당히 「에」
- 不良の 불량의 「에」
- 聞き返すときの 되물을 때 「에」

자

- 料理をふるまう 료리를 대접하는 「자」
- 物語の始まりに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「자」
- 実況中継의 실황중계를 시작하는 「자」
- 帰りを促すときの 귀가를 재촉할 때 「자」
- 定規의 학용품의 「자」
- 見てほしくて 관심을 끌고싶어서 「자」
- 急かすとき 재촉할 때 「자」
- 期待を込めて 기대를 담아서 「자」

응

- 快諾するとき의 쾌히 승낙할 때 「응」
- 不満げな 불만스러운 「응」
- 元気な 힘있는 「응」
- あいづち의 맞장구의 「응」
- 違和感を感じたときの 어울리지 않아서 「응」
- 聞いてなかった時の 안들었을 때 「응」
- 適当な 적당한 「응」
- 恥ずかしいときの 부끄러울 때 「응」

길이 어떨소

- 緊迫の様子で 긴박한 상황에서 「길이 어떨소」
- 遠くに呼び掛けて 멀리 부를 때 「길이 어떨소」
- 不満を抱いて 불만스럽게 「길이 어떨소」
- やじるように 놀려주듯이 「길이 어떨소」
- 棒読みで 단조로운 억양으로 「길이 어떨소」
- 能天気な 경박하게 「길이 어떨소」
- 心配そうに 걱정스럽게 「길이 어떨소」
- 迫真の演技で 진실한 연기로 「길이 어떨소」

자신에게 물어보라

- 思いつめながら 깊은 생각에 잠겨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嫌味たらしく 밉살스럽게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どうでもよさそうに 흥미가 없다는듯이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聞き返して 되물으며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鼻で笑って 코웃음을 치며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映画予告風に 영화예고처럼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言い聞かせるように 타이르듯이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- 詩を読むように 시를 읊는듯이 「자신에게 물어보라」

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

- 愛の告白をするので 사랑의 고백을 할 때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ミュージカル風に 뮤지컬처럼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感極まって 몹시 감동하여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秘密を暴露ので 비밀의 고백을 할 때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みんなを鼓舞するように 모두를 고무해주며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嫌々と 할수없이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怒りながら 욕하면서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- 声を震わせながら 목소리를 떨리면서 「말해야지, 오늘같은 날에야」

과 제
카드

과 제
카드